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역기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1-2)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 즉,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는 구약성경에서 흔히 쓰는 서두가 아니므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의해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이삭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불임과 고령의 악조건에서 나온 기적의 열매였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아마도 그 후로 몇 년 간은 이 노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낸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일 후에’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어려운 일을 겪은 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책이며,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시기까지 그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1세대에 에덴동산에서의 배신이 있었고, 2세대에 형제의 살인 사건이 있었으며, 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온 땅에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홍수와 함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려 하셨지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부터 바벨탑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든 인류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창세기의 앞장에서 인간의 죄에 여러 번 데이고도 여전히 이 세상에 복 주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신실함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얼마되지 않아 하나님이 불안해하실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더러 자신의 누이 행세를 하라고 한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 주시도록 의탁하는 대신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끔찍한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인류의 복이 달려 있는 이 한 인간이 견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언약관계에 있었는데, 언약관계에 있다는 말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실했으면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강제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사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이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비록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도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얻기를 바라시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DAY PROGRAM 두드림



마트 장보기 연습



손가락 스트레칭



북치기가 즐거운



어깨 주물러드려요



정확하게 스윙



야광 북치기



와플 드세요



예형이 잘했어요



자전거타기가 취미

DAY PROGRAM 두드림



북치기 트리오



북치기 트리오 2



신기한 표정



빌립 생일축하



오르막길 도전



북치는 재혁



반가워 브라이언

꿈글학교 가을학기



봉사자와 함께



봉사자와 함께2



봉사자와 함께3



북치기 시간



한글공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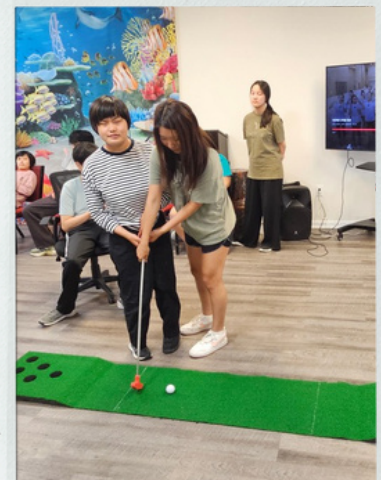
피자 만들기



즐거운 율동시간



지우야 잡아봐



봉사자와 함께 퍼팅

꿈글학교 가을학기



김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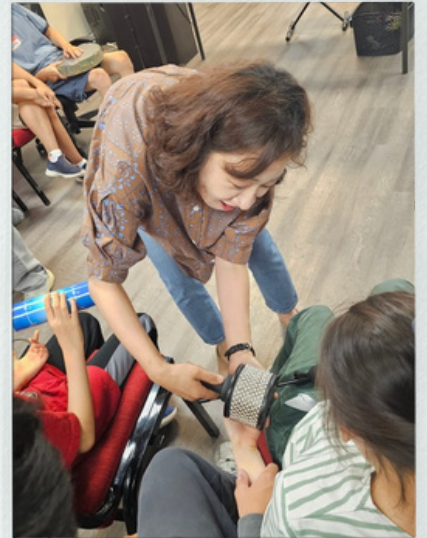
음악치료 특강



호프도 해봐요



국민체조 시간



음악치료 특강2



점심후 산책



풍선치기

CONTRIBUTION



9월 후원자님

주영광고회 (\$100)
이동욱, 이희정 (\$50)
노영우, 노형숙 (\$50)
박영숙, 유재원 (\$50)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곽공욱, 서귀애 (\$1000)
섬기는교회 (\$200)
예수소망교회 (\$900)
Sally 성희 김 (\$2000)
[The Good Management]
Moya Cooper (\$50)
김성락, 정진이 (\$50)
구자은 (\$100)
최경숙 (\$300)
장진원 (\$100)
Mankay Inc (\$100)
안희을 (\$100)

점심후원

9/25 안나래 가정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ONE MINISTRY CENTER



MAIN MISSIONS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꿈글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Director: 장진원목사님

Open

Tue-Fri: 9 am-5 pm

Sat: 9 am-2:30 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facebook.com/1000770455929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